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 학사일정

#### 10월

- 1(금)-29(금) 2021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 4(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 8(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 8(금) 2학기 종합시험 시행
- 11(월) 한글날 대체공휴일
- 12(화)-18(월) 2022학년도 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 12(화)-20(수)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예정)
- 20(수)-11.2(화) 2학기 중간고사
- 29(금) 종합시험(10월 시험) 결과 발표(예정)

#### 11월

- 2(화)-4(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 10(수)-12.10(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 27(토)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독회원 등록

- 전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김성일
- 주간 김홍찬
- 간사 문창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교육신문

2021년 10월 5일(화)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80호(월간)

## ■ 초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교육교류에 앞장서는 국립국제교육원

### ■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의 국가행정기관으로 교육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62년 출범 이후 초창기에는 재외국민을 위한 교육을 주로 담당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교육 분야의 다양한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서로 협력하고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

### ■ 국립국제교육원의 역할과 운영 비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한류의 대표 기관으로서, 1967년부터 50여년간 11,115명의 해외 우수 인재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한국정부 대표 국제장학 프로그램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학박람회 등을 통해서 세계 각국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원) 유치를 지원합니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들의 한국 유학, 취업, 결혼 이민 등 많은 분야에 필요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국내 및 83개국에서 시행합니다(2019년도 기준).

앞으로도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기관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대표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향하는 '국제교육'이란 무엇이며,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첨단기술의 발전 및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 이러한 미래인재 양성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인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감, 창의력, 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 협업, 세계시민의식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시켜 궁극적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나

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국가 간 교류의 장벽이 높아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국제교육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제교류사업들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 기회 단절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연수 프로그램, 유학박람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사업은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한편, 교원해외파견사업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수원국 정부·재외공관과의 협력을 통해 파견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교수학습능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현직 교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도 차질 없는 외국어 공교육 지원을 위해 우수한 원어민 영어·중국어 보조교사를 선발하고, 적극적인 방역 지원 및 자가격리 지원, 내실 있는 사전연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 교육원에서 현재 역점을 두고 있거나, 향후 계획 중이신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IBT 기반 말하기 시험 개발 및 AI,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평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응시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지원자 수 연 100만 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면 유학박람회 개최를 위한 대학 부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므로 유학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GKS)을 통하여 해외 교육 취약계층에 유학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교육 ODA를 통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경제적 환경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성남·용인 지역에 국한되던 진로체험교육인 '찾아가는 국제 이해 교육'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정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 중 '교원해외파견사업'과 '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WEST)'은 교육 분야의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교육 패러다임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의 역량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당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2020년도 교원양성기관 평가 우수 등급으로 선정"

입학원서 접수	10월 12일(화) 오후 1시 ~ 10월 18일(월) 오후 5시
제출서류 우편접수	10월 12일(화) 오후 1시 ~ 10월 20일(수) 오후 5시
구술시험	11월 27일(토) 오전 9시
모집전공	가정교육*, 간호교육, 교육방법, 교육사철학, 교육정보,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 국어교육*, 기업교육, 도덕·윤리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일어교육*, 체육교육*, 컴퓨터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문의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90-1378, 1371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 취득 무시험검정(교직사정) 안내

지난 9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는 10월 6일(수) 17시까지 2022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원생을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최종신청'이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은 본교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으로 입학한 원생 중 2021학년도 2학기에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원생이거나, 수료자로 2022년 2월 졸업예정인 원생이다. 기 수료자의 경우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다시 최종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및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의 경우 '본교 포탈 로그인>정보생활>교직사항>무시험검정원서신청(교육대학원) 메뉴'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영어교육전공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507호)에 영어성적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성적표만 유효하며, TOEFL IBT 100점(CBT 250점) 이상 또는 TOEIC 87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기간 내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졸업요건과는 별개이다.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은 제출서류를 갖추어 교직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 주소는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 운초우선교육관 507호 교직팀 앞'이며 봉투에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 신청서류 재중'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 중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된다. 제출 서류는 무시험검정원서(전문상담 1급),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학부에서 취득한 2급 교원자격증 사본이다.

중등2급 정교사 부전공 교원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원생은 무시험검정원서(부전공), 재직증명서 원본(무시험신청 시 현지 교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부에서 취득한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 및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우편 발송 시 봉투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부전공 자격취득 신청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및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1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12월 24일(금)까지 신청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교 포탈 로그인>정보생활>교직사항>무시험검정원서 조회(교육대학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등2급 부전공 자격 및 전문상담 1급 이수증 취득 희망 원생의 경우 2월 초 즈음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유선 안내가 이루어진다.

한편, 지난 6, 7월 중의 1차 신청자는 이미 접수되어 있으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1학년도 2학기 수강내역을 반영하여 교직사정 결과가 업데이트되므로 1차 신청자들 또한 2차 결과 조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무시험검정 최종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s://edugrad.korea.ac.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직팀에 전화(02-3290-2398/2399) 문의할 수 있다.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접종 출석인정 안내

본교 교육대학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대체 출석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정한다.

학생은 출석인정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출석을 인정받으자 하는 강의를 진행하는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로 출석인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본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백신접종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유념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접종 당일과 접종 후 1~2일차에 이상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종 증빙 서류에는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와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다.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는 백신을 접종한 병원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접종 후 3~7일차까지 이상증상이 지속되면,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접종 후 8일차 이후까지 증상이 지속된다면,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명의의 발생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이상 증상이란 접종 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이다.

교원은 이메일로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성적 입력 시 과목별 출결사항에 반영한다. 교육부의 '백신공결제 운영안'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출석을 인정한다. 한편,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로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9월 1일부터 추후 안내 시까지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 '학습공동체 굿티처스' 프로그램 안내

본교 교육대학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학습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교육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습공동체 굿티처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별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수업에 대한 계획·실천·평가를 주도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공별 특성이 반영된 학습법 및 고유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학습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 학습공동체를 유형별로 운영하여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연구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학생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성장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교 교육대학원은 지난 9월 6일(화)부터 9월 17일(금)까지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9월 29일(수) 선발 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는 10월 8일(금) 오전 10시에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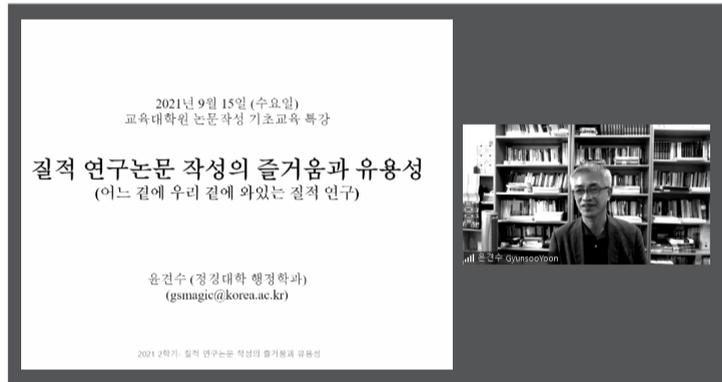
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운영 기간은 오는 10월 11일(월)부터 11월 19일(금)까지이다. 해당 기간 중 5주를 팀별로 자유롭게 선정하여 활동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팀별 관심 주제에 대한 연구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어 3주 차까지의 활동 내용을 오는 11월 5일(금) 중간보고서로 제출하고 11월 30일(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팀에게 500,000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연구 결과물로 해당 팀에서 만든 고유의 콘텐츠를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형태는 소논문, 보고서, PPT, 동영상, 가이드북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하면 된다. 해당 결과물을 토대로 오는 12월 17일(금)에는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내년 2월 중에는 활동모음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학습 분위기를 격려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사로서 추후 진행사항은 변동될 수 있다.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 2021학년도 2학기 논문작성 학술제



지난 9월 15일(수)과 16일(목) 양일간 총 4차시에 걸쳐 '2021학년도 2학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논문작성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본 학술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를 통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었다.

첫날 진행된 1차시(16:00~17:00)에는 윤건수 교수(정경대학 행정학과)가 '질적 연구논문 작성의 즐거움

과 유용성'이라는 제목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의 전반적인 필요성과 연구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2차시(17:00~18:00)에는 김자미 교수(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가 '논문의 체계와 연구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양적 연구방법론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방법과 논문 체계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이루어진 3차시(16:00~17:00)에는 정재림 교수(사범대학 국

어교육과)가 '연구 주제 선정과 연구 계획서'라는 제목 하에 논증의 방법을 바탕으로 한 연구 주제 설정 및 연구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4차시(17:00~18:00)에는 교육대학원 논문상담실 조기현 조교가 '논문작성 시 필요한 정보소개'라는 주제로 학술정보 이용법 및 표절 관리 방법 등 논문작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끝으로 본 학술제는 마무리되었다.

한편, 교육대학원 논문상담실은 사범대학 본관 101A호에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이메일과 전화, 화상채팅서비스를 이용한 상담 또한 가능하다. 단, 사전에 이메일(consult1374@daum.net)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 논문상담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 2021학년도 1학기 명강의상 시상식

지난 9월 23일(목) 오후 12시 교육대학원왕실에서 '2021학년도 1학기 명강의상 시상식'이 김홍찬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는 김준희, 안성희, 편상범, 강성호, 최윤정 교원이 참석하였다. 김성일 원장은 명강의상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하며 훌륭한 강의에 대한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교육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모든 강의가 종료된 후 수강자들의 강의 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교수자에게 본 상을 수여한다.

이번 교육대학원 명강의상을 수상한 교원은 총 12명으로 다음과 같다.

	수강생 8-19명	수강생 20명 이상
전임교원	조대연(기업교육전공, 인적자원개발과 휴먼웨어) 김준희(기업교육전공, 기업교육평가) 정지선(상담심리교육전공,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전민호(교육사철학전공, 교육철학 및 교육사) 김홍찬(수학교육전공, 기하학) 천승현(체육교육전공, 스포츠심리학)
비전임교원	안성희(교직, 교육전문가를 위한 교육상담) 편상범(도덕윤리교육전공, 서양윤리사상특강) 강성호(평생교육전공, 평생교육전문가로서 인성함양을 위한 평생교육명서 강독)	조민희(교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이상희(상담심리교육전공, 상담실습) 최윤정(영어교육전공, 영어청해 및 회화교육)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교배정 신청과 개인섭외가 가능하다. 학교배정 신청은 지난 9월 16일(목)부터 9월 24일(금)까지 교직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개인섭외는 지난 9월 23일(목)부터 오는 12월 3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 소속 학년에 따라 다르다. 10학년 이전의 경우,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는 2022학년도 1학기에 5학기 이상, 교육대학원생은 3학기 이상 재학 예정이어야 한다. 11학년 이후인 경우, '00교과교육론', '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위의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 완료한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와 교육대학원생은 실습하는 학기에 나머지 한 과목을 수강하며 실습할 수 있다.

학교배정은 2019년 4월 12일 의결된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력학교 승인인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신청자의 희망지역이나 기간과 다를 수 있다. 배정 결과는 10월 29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미배정된 학생은 결과 발표 이후 개인섭외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학교배정 협력학교는 개인섭외가 불가능하다.

개인섭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희망자는 교직팀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내 학교현장실습 공지에 첨부된 학교현장실습 의뢰 공문과 협력 승인서를 가지고 실습 희망학교를 방문하여야 한다. 이후 실습 희망학교의 담당자가 작성한 협력승인서와 본인이 작성한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교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 승인서에는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 소재 학교를 섭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실습학교와 유선 협의 후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교직팀으로 제출해야 하며 협력승인서는 별도로 공문처리를 진행한다. 협력 승인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는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한 후 2022학년도 1학기 중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실습 기간은 교육부의 관련 안내사항이 미고시됨에 따라 2022년 3~5월 중 4주 실습을 기본으로 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조정사항이 생길 경우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팀으로 전화(02-3290-2398/2399) 또는 이메일(teaching@korea.ac.kr) 문의하면 된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교육과 이슈

# 범죄경험이 있는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



김시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과장

삶의 한 단면 같지만,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년보호시설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퇴소한 후,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경험이 있는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게 하는 포토보이스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일상을 관찰하고 성찰함으로써, 본연의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각도에서 일상생활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일상에는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 '일상을 채우는 여가', '일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미래'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 여전히 많은 시간을 무용하게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다 잠시의 쾌락 혹은 즐거움을 추구했을 뿐 의미 있는 여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때, 다른 여가활동으로 대체하거나 더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찾고자 갈망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일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도약하고자 하였다. 본래의 일상은 새로운 약속들이 꿰뚫고 들어가기 힘든 영역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약속에 대한 실천과 성공 및 실패를 반복하며 미래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

즉, 범죄경험이 있는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과거에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일상을 보냈다면 현재는 목적을 향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과거를 지배하던 범죄경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흔들이 곳곳에 여전히 잠복하고는 있지만, 안전한 공간과 건강한 관계의 공간에서 균형적인 '일상성'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미래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룹홈을 넘어 관계와 지역사회 공동체 '공간'에서의 일상이 서로 씨줄과 날줄로 엮여 상호작용하며 촘촘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 경험에 있는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은 '미세하고 비정규적으로 흩어진 연약한 점과 점들이 모여 정규성이 더해지는 선'과 같았다. 더 나아가 그룹홈이라는 공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내 관계를 통해 '건강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삶의 한 영역'을 지속해서 넓혀 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범죄경험이 있는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에 관한 탐색으로 도출된 재범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보호처분 기관에서 출소 후 이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며, 가정 및 사회에 진입하기 전 일

상성을 찾기 위해 그룹홈과 같이 여러 단계의 중간처우시설이 필요하다. 보호처분 후, 사회복귀 전의 그룹홈 생활은 외부 세계로의 무분별한 이탈을 방지하고, 구성원의 신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단, 그룹홈은 '안전한 공간'을 넘어 '온전한 공간'으로서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공간이 물리적 공간(空間)에 주목한다면, 온전한 공간은 자신의 재주와 솜씨를 키우는 성장의 공간(功幹)으로써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인격적 지지자는 청소년들의 내면 갈등이 삶의 성장통임을 이해하여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 장애와 행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공감자이길 바란다.

둘째,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기술의 훈련과 여가활동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범죄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과 일탈 경험들은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출렁이는 감정에 취약하며, 습성화된 문제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여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들과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시도하고, 건강한 일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의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법적 처분을 받기 전 대부분 시간을 자유로운 여가로 채워왔다. 그러나 이들에게 여가는 삶의 또 다른 정체성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건강한 일상을 살기 위해 스스로 여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그에 맞는 여가 환경 조성과 시간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일상을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보다 건강한 여가생활로 채울 수 있는 현실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일상적인 삶과 연결할 수 있도록 자립과 진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와 관련된 큰 목표에 대한 상상은 장기적인 삶의 에너지를 주고, 소소한 성취 경험들은 일상적인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동기를 준다. 따라서 그룹홈 청소년들과 일상을 함께 하는 가운데 작은 성취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삶의 비전을 논의하면서 진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그룹홈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고, 타인과 건강한 의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취업이나 창업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도전들로 확장되면서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여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들이 일상성을 유지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 심리 영역이 적절하게 결합하고 융합해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부터 촘촘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재년의 일상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을 그리워하며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건강하고 평범했던 일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게 한다. 재년으로 손상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상이 다시 두텁게 축적되어야 회복 후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건강한 일상이 차곡차곡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아이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만 궁급해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일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단어와 함께 검색되는 단어 중 '일상'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띈다. 지금처럼 재난의 일상화를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일상이 주는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하였고,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조차 잘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잠식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의 일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경험이 있다. 기존 비행청소년 연구에서는 문제상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필자는 이들의 보편적인 일상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보호처분을 받는 일정 시기 동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한 후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였다. 일상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지나가는

교육단신

## 새로운 교육기술의 활용, 학습 혁신의 시작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본 행사는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학습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 누리집(www.edtechkorea.or.kr)을 통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다.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는 '에듀테크, 학습 혁신과 메타버스의 시작'을 주제로 간접적으로나마 현장감 있는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 3D 형태의 가상전시관이 꾸러졌다. 특히, 가상전시관 내 교육부 정책홍보관에서는 새로운 교육기술을 활용한 수업 사례 발표 영상, 디지털교과서 실감형콘텐츠 등을 볼 수 있었고, 산업부 정책홍보관에서는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 등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연구개발 우수 기술 소개와 체험이 진행되었다. 에듀테크 기업관에는 약 140개 기업이 참가하여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서비스관, 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 등 새로운 교육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온라인 전시관은 에듀테크의 활용을 확산하고 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사 이후에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2021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은 '에듀테크, 학습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교육부가 단독으로 주최하였다. 본 포럼은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영역(동시통역) 온라인 생중계 되었으며, 주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육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 △학습분석 △교육의 디지털 전환 동향 △평생교육

행사에는 '칸 아카데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살만 칸을 비롯하여, 안토니 살시토(마이크로소프트 교육사업 총괄부사장), 팀 언원 교수(런던대), 김성균 교수(강원대) 등 총 10개국 50명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교육기술을 활용한 학습 혁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평생교육학술원, 24개국 교육정책자, 에듀테크 관련 국제기구 기업 등이 참여한 교육 정보화 정책 개발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의 보다 많은 선생님, 학생, 교육 및 기업 관계자 분께서 미래교육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기술을 통한 교육환경 혁신의 가능성을 탐색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예향 기자 je\_franchise@korea.ac.kr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지난 9월 10일(금) 교육부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경찰청,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생을 달리한 고(故) 김대현 군의 아버지가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문용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과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설립자 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민관이 힘을 모은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 감지를 위해 교육현장과 소통을 이어나가며 학교폭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표명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학교가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 감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하며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예방교육 활동 강화 및 업무역량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협력하고 소통한다.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인수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정서심리 회복을 위해 현장 방문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 및 착 지원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은 선제적 예방과 발생 초기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 푸른나무재단과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조기감지 및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 교육부, 미래교육을 위한 발판 마련

정중철 교육부차관은 지난 9월 2일(목) 개최된 제34회 차관회의에서 2021년 기관 중점 추진과제와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5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학교 교사(敎舍) 증·개축 기간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임시 건물의 학습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달청의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로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이 선정되었다. 모듈러 교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게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유닛)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 설치하는 형태의 학교 건물이다. 이에, 학교 공사 기간 중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신도시의 일시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교원인력 수요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을 위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통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 현장 배치를 추진하였다. 1,993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인력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격차 완화 및 방역 인력을 확보하였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및 협업체계 수행 등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혁신모형(모델)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공립대학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고등교육혁신모형을 창출하였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수능과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9월 모의평가 신청과 연계하여 백선점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9월 모의평가 접수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백선점종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본인의 동의하에 백선점종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에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조기에 백선점종을 받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과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무선망 구축 전에는 온라인 수업에 교사 개인이 소형 공유기 등 무선망 장비를 준비하여야 했고, 통신 속도 제약·접속 불안 등 일부 불편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체 일반교실 등 31만 실에 기기급 무선망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시도교육청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1년 2학기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망 구축을 추진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 교육과 학문

##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개인 및 조직 변인의 위계적 관계



문미혜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관양중학교 교사

무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특수학교의 상황과 맥락에서 특수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특수교사를 성인학습자로 인식하고 학교조직 내 다양한 학습 기회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변수 측정 수준과 분석의 수준을 일치시키는 다층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9,161명의 특수교사로 선정하였으며, 시도별 특수학교의 비율과 다층분석 적용 시 표집요건을 고려하여 총 40개의 학교를 표집하였다. 최종분석은 33개 학교, 45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조직 수준 변인의 위계적 관계를 구명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 개인과 학교 수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학문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및 조직 수준의 변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65.3%, 조직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34.7%로 확인되었다. 둘째,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개인 수준 변인의 설명량( $R^2$ )은 6.25%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수준 변인 가운데 경력 및 무형식 학습 활동의 외부탐색, 학습민첩성은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조직 수준

변인의 설명량( $R^2$ )은 53.6%로 나타났다. 조직 수준 변인 중 조직학습 역량 구축요인인 리더십, 그리고 학력 평균과 개인개발이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교사 개인 및 학교조직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개인 특성과 학교조직 특성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전문직업적 정체성이란 자신을 전문가로 평가하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개인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가 속한 학교 특성에 따라라도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소속된 학교의 맥락적인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특수학교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낮아진다. 교직 경력이 높은 교사들은 저경력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교육 현장경험이 풍부함에도, 특수교사의 발달 특성이나 전보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사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경력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민첩성과 무형식학습 활동 중 외부탐색은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다. 특수교사는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

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학생을 둘러싼, 실제 맥락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수교사는 학습에 대해 개방된 태도로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학습하며, 문제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민첩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외부탐색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특수학교 교사의 조직 수준 변인 중 학교 내 교학력 교사의 비율과 그들의 리더십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반면 조직학습구축 역량 가운데 개인개발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학습을 이어간 교사들이 많을수록, 또한 학교장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사들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향상된다. 하지만 조직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하향식으로 학습을 장려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여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조직학습을 촉진하는 학교장 리더십은 개인개발을 동기부여 하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는 교사의 전체 학력 평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쳐, 결국 특수학교 교사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전문직업적 정체성 향상을 위한 토대로서 기존 교원연수의 방법과 형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위

기상황이나 돌발상황이 빈번한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새로운 상황 가운데 빠르게 학습하고 즉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특수학교 교사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사들이 다양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이 된다면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부여가 되어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교사 개인의 역량 향상뿐 아니라 전반적인 전문직업적 정체성 확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특수교사가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학교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및 문 제상황 해결과 관련한 매뉴얼, 또는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특수학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습리더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마련해야 한다. 조직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교장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는 리더십 육성을 위한 주제가 간과되어왔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일반학교장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과 같이, 특수학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도 리더십 주제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조지 해리슨 20주기 특집: 비틀즈의 역사 ②

## 함부르크 시절: '영국의 침공' 전야(前夜)



교육신문 문화평



함부르크 시절의 비틀즈. 왼쪽부터 피트, 조지, 존, 폴, 스투어트

© The Guardian

던 피트 베스트(드럼)와 존의 미술대학 친구인 스투어트 서트클리프(베이스)를 멤버로 급조해야 했다. 잔뜩 설렌 그들이 도착한 함부르크는 당시 '독일의 리버풀이라 할 만큼 거친 도시였고, 클럽 환경 또한 열악했다(비틀즈는 낡은 소극장을 숙소로 사용했고, 극장 화장실에서 씻어야 했던 그들은 샤워를 거르기 일쑤였다). 또한 하루 8-10시간의 공연을 소화하기 위해 각성제까지 복용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은 개의치 않았고, 바로 그 악조건이 몇 년 뒤 전세계가 사랑하게 될 비틀즈의 정체성을 발아했다. 우선 긴 공연 시간은 아직 성기던 연주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쇼를 보여줘봐'라고 외쳐대는 거친 독일 관객들을 상대하며 관중을 환호하게 만드는 퍼포먼스와 사운드를 만들어 나갔다. 멤버들의 회고에 따르면 '딱히 따라할 대상도 없는' 이국의 도시 생활은 표백되어 버린 로큰롤의 원초적 형태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실습 기간'이었다. 이후 성공을 위해 복장이나 헤어 스타일의 변화는 감수했지만,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는 자의식은 이들이 해체할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실습의 결과도 제법 좋아서 당초 6주였던 계약 기간을 5개월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 12월, 연령 및 비자 문제로 비틀즈는 쫓기듯 귀향해야 했다. 원래 음악보다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스투어트만 독일에 남았고(그는 2년 뒤 뇌출혈로 요절했다) 이 때부터 폴이 베이스를 맡게 된다. 잠시 침울하게 지내던 비틀즈는 이내 리버풀에서 활동을 재

개한다. 어느 밴드들이 "클리프 리처드 따위를 흉내 내느라 미쳐 있던" 이 시기, 함부르크에서 형성된 거친 사운드의 독창성이 부각되면서 비틀즈는 곧 '머지(Mersey, 리버풀을 포괄하는 머지 강 일대) 사운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기 밴드가 된다. 한편 이 시기 이들은 곧 써내려갈 신화에서 자신들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 한 명이 매니저인 브라이언 엡스타인이었다.

큰 가구회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인 브라이언은 소일거리로 네스(NEMS)라는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비틀즈의 음반을 찾는 문이 쇠도하자 호기심을 느낀 그는 1961년 11월, 비틀즈가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캐번 클럽'을 방문한다. 계약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다. 브라이언은 비틀즈에 매료되었고, 비틀즈는 자신들을 머지 강 너머 런던으로 데려다 줄 매니저가 필요했다. 그러나 주류 시장에 끼기 위한 타협이 필연적이었는데, 브라이언이 제시한 조건은 거칠게 넘긴 머리를 얇전히 내릴 것, 가죽 재킷 대신 정장이나 스웨터를 입을 것, 그리고 무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지 말고 말쑥하게 행동할 것 등이었다. 존 레논의 경우 몇 년 뒤엔 이 타협책을 경멸조로 회고하지만 당시에는 머뭇거리 이유가 없었다. 스스로 말할 것 "성공하느냐, 아니면 계속 무대 위에서 닭다리를 뜯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브라이언은 발 빠르게 사업 수완을 발휘해 투어와 홍보 일정을 잡는 한편 음반 작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1962년 1월, 첫 오디션을 치른

데카 레코드에선 "로큰롤은 유행이 지났다"며 제안을 거절했고, 그 외 20여 개의 음반사도 마찬가지로 입장이었다(화가 난 브라이언이 데카 관계자에게 "이 그룹이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훨씬 성공할 것"이라고 받아친 일화는 유명하다). 몇 달 뒤 브라이언이 "마지막 전면 공격"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접촉한 EMI 산하 팔로폰 레코드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데, 이 때 오디션을 담당한 이가 바로 훗날 '제5의 비틀즈'로 불리게 되는 프로듀서 조지 마틴이다.

향후 비틀즈의 거의 모든 앨범에서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될 그이지만, 이 시기에는 신인 밴드와 면접관의 관계였다. 조지 마틴은 비틀즈의 독창성을 마음에 들어했으나 드러머의 연주 실력이 조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멤버들은 처음엔 드러머 교체를 반대했지만, 이내 피트 베스트는 (그들이 아직 몰랐을) 성공을 목전에 두고 탈퇴한다(피트는 이 사실을 멤버들이 아닌 브라이언에게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존은 "우리는 비겁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새로 뽑힌 드러머는 전술한 로리 스톰의 드러머 링고 스타였고, 이로써 해체하기까지 비틀즈로 활동할 네 명의 멤버가 고정된다. 이윽고 1962년 10월 4일, 이들의 첫 싱글 'Love Me Do'가 발매되었다. 곧 시작될 영국 내 리버풀 사운드의 반란, 그리고 연이어 미국과 전세계를 겨냥할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 영국의 침공)'의 서곡이었다.

교육과 스승

‘안전한 유아교육’을 제공하고자 평생 몸 바쳐 오신 우영혜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우영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을 향한 평생의 소명의식을 구현하고자 일생 동안 유아교육의 길을 닦아 오신 우영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영혜  
거창유치원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거창유치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우영혜입니다. 1980년대 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서 경남 공립유치원 1회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유아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교사, 원감, 장학사, 장학관 등을 거쳐 원장이 되었으며, 현재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을 맡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학사가 되었을 때 전문대학을 졸업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독학사, 석사, 박사 공부를 하여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주말이나 야간에 대학 강사를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직무와 학업, 그리고 대학 강의를 병행하느라 무척 힘들었지만 돌아켜보니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대학을 다닐 때는 대학생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적의 꿈을 이룬 셈입니다.

원장님께서 40여년을 넘는 시간 동안 유아교육계에 몸담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의 길을 개척해 오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자상하게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보고 막연하게 나도 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에 가지 못해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서 재미있고 적성에 잘 맞아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된 것입니다. 초창기 교사가 된 선배로서 먼저 경험하여 후배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수많은 직업과 소명이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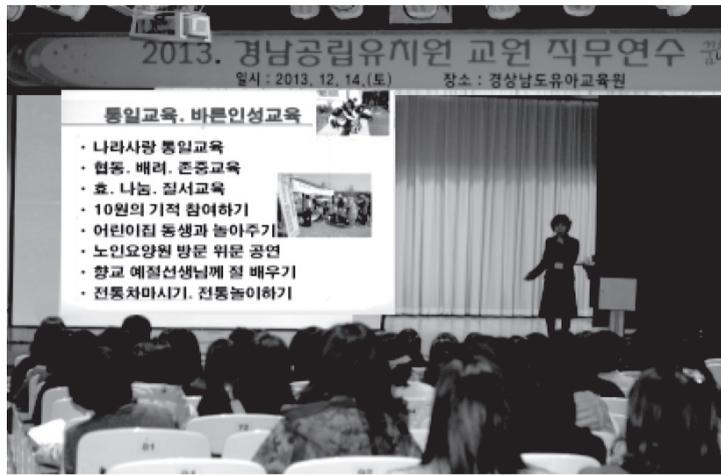
록 도와주는 일이 가장 보람되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거창유치원에서 원내 자율적 컨설팅 장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공립유치원은 교사가 자주 바뀌고, 특히 단설유치원은 신규교사가 많은 편입니다. 신규교사들이 잘 적응하고 교사의 역할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유아가 입학해서 졸업하는 3월까지 수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원내 자율적 컨설팅 장학’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사들이 원하는 장학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동일 연령 학급교사 및 부장교사, 원감, 원장이 함께 수업에 대한 협의를 2-3회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선배교사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동기유발, 자료 활용법, 발문기법, 전이 활동 등에 대해 지도·조언합니다. 수업 공개, 평가 및 결과는 사후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고, 함께 개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었으며, 유치원교사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에서도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매년 충원율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정보센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공립단설유치원 1개원, 사립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 14개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한 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교사 1인이 모든 업무와 유치원 행사, 수업 등을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아교육 정보 공유와 유치원 교육을 도와주는 지역정보센터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태권도교실,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교사연수, 학



부모 연수, 과학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며, 공·사립 유치원 교원의 유대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장에서 안전교육이 특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장님께서 안전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유아기는 지능과 인성 등 모든 부분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유아기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시설에서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하더라도 유아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안전 교육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유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아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유아들이 안전에 관한 지식, 태도, 습관을 형성하여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아-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교육 활동으로 유아들의 안전체험활동,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배부, 학부모 심폐소생술 연수, 지역 소방서와 MOU 체결 등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개발한 안전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연령별, 영역별로 적용한 후 일반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였습니다.

평생을 유아교육에 몸담아 오시면서 특별히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교사 경력 5년쯤 되었을 때 도벽이 있는 진이(가명)를 만났습니다. 친구 가방을 뒤져서 동전을 가져가고, 유치원의 장난감도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미술심리상담사에게 진이의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 매일 그림을 한 장씩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이를 지도해서 도벽을 치료하였으며,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이 바람직하게 변화되어 갈 때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스승의 날이 되어갈 무렵 진이에게서 유치원으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선생님께서부터 예뻐 받았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치료 가 잘 된 것이 마냥 고마웠는데, 전화를 받으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유치원은 아주 어린 시기여서 그런지 예전 담임을 잘 찾지 않는데, 가끔 제자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꿈을 설정하여 대학생 활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세운 뒤 학창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험을 쌓다보면 중간에 목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하였으니,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대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 교육과 세계

## 스코틀랜드, 자연으로 나가는 교육



이지호

아웃도어 교육자  
채드워크제학교 아웃도어교육팀

2020년 5월, 영국의 언론매체 가디언은 스코틀랜드가 아웃도어 학습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멈추어야 했던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특히 유치원이나 저학년 어린이들은 야외에서의 학습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영국은 1차 대유행이 정점을 막 지나던 시기였고, 교육 기관들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인가는 사회적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 기사를 보면서 스코틀랜드 교육 기관들의 접근이 매우 신선하게 보였으며, 아울러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접근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발상의 전환이 부러웠다.

자연이 우리 인간의 건강,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더 많은 사실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숲과 들판,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스코틀랜드 교육부는 2005년 '아웃도어 커넥션'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2년간 시행하였다. 이는 기존 혹은 새로운 흐름의 아웃도어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책과 분야의 인적 자원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연구 노력의 결과물은 스코틀랜드 교육의 방향성을 정리한 '우수성을 위한 커리큘럼(Curriculum for Excellence)'에 담기게 된다.

이어서 2010년 스코틀랜드 교육부는 아웃도어 러닝을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커리큘럼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는 모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아웃도어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을 교실을 벗어난 여러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학교가 있는 지역의 자연·문화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지역 고장의 자연, 역사, 문화와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험들은 학교나 기관, 교사들에 의해 미리 기획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참가하여 그 경험들을 주체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존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가진 문제점의 하나인, 미리 만들어져서 빈틈없이 짜인 일정을 참가자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소비하는 것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스코틀랜드 북부 애벌러에 자리한 스페이사이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잘 보존된 주변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 산악자전거와 카약킹, 오리엔티어링 등의 아웃도어 활동들을 이미 활발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자연 환경을 교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 예로 교정의 나무들을 벌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벌목 전에 나무의 생태를 조사하고, 그림과 글로 기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각 나무들이 생애를 통해 경험했을 법한 일들에 대해 글을 지어 보기도 했다. 수도 에든버러의 리버튼고등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리 수업도 역시 좋은 사례이다. 학생들은 학교 교정에서부터 지리를 이해하는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여 학교 주변 동네를 탐사한 이후에는 고대 화산인 아더스 시트를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이해하는 눈을 키우게 되며, 지리 지식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가진다. 이때 지식은 단지 문자로 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사는 곳을 이해하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며, 일관된 교육적 목표를 가진 아웃도어 러닝이 그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아웃도어 교육의 중요한 주제어 가운데 하나는 '지속가능

성'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이 교육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요소인 아웃도어 교육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삶과 자연이 주고받는 상호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친밀감을 만들고,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피부로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스코틀랜드 교육이 주요한 커리큘럼의 범주에 지속가능성을 책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발걸음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의 많은 부분이 아웃도어 러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스코틀랜드 교육의 아웃도어 러닝이 목표로 하는 가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신을 보다 건강하게 성장시키며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열린 공간, 자연, 우리 주변의 삶의 현장으로 확장시킴으로써 통합적이며, 살아 있는 학습이 가능해진다. 셋째,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넷째,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험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키우는 동시에 협력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자연에서의 학습을 통한 이와 같은 혜택을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노력과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아웃도어 교육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 년에 한번 3박 4일의 캠프와 같은 일회성 경험으로 교육적 효과의 지속성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학생들이 자주 운동장으로, 학교 주변의 공원과 야산으로, 박물관과 시장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접근해야 한다. 우리

주위의 크고 작은 산과 숲, 개울들은 모두의 놀이터이며 교실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와 일상 가까이의 환경에서 출발하며, 아울러 캠프 프로그램 또는 좀 더 깊은 자연으로 나가는 원정 형태의 프로그램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면 그 교육의 효과를 크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교육부는 교육의 비전으로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을 가진 개인, 효과적인 기여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진 시민을 키운다'는 목표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당국과 학교 사회는 여러 가지 접근의 하나로 아웃도어 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이러한 시도는 이제 10년을 넘어가고 있기에 청소년들의 삶에 앞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영국 보건 당국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스코틀랜드 북부의 셰틀랜드에서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자연을 처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환자들로 하여금 바닷가를 산책하고 조개껍질을 수집하도록 하거나 매일 마을 근처에서 철새를 관찰하도록 처방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이 가진 치유의 효과를 현대 의학에 적용시키는 시도이다. 스코틀랜드 교육 당국이 아웃도어 러닝을 미래 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과 통하는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도 이제 보다 미래를 내다보며, 개인과 사회의 행복, 환경과 사람의 지속 가능한 공존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침 올해 7월 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 7월 드디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교육의 전향적인 발전과 아웃도어 교육이 가진 가치가 조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자연 속에서 보내며 자유롭게 몸과 정신을 펼치고 성장하는 교육을 꿈꾸어 본다.



## 교육현장 노트

## 코로나19 바이러스 걱정 없는 학교를 꿈꾸며



장석조

생물교육전문

은 학교의 풍경, 그리고 나이가 드셨음에도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익숙한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니 지난날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떠오르기도 했다.

실습 기간 4주 중 첫 2주는 여러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며 앞으로 있을 나의 수업을 준비하였다. 맨 처음 수업에 참관하러 들어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실마다 노트북과 필기할 수 있는 태블릿이 준비되어 있는 점이었다. 물론 컴퓨터는 모든 학교에 갖춰져 있었지만 태블릿을 교실에서 본 것은 처음이라 신기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은 수업하실 때 수업 자료를 파일로 띄우시고 그 위에 태블릿을 사용해 칠판에 필기하듯 글씨를 쓰며 수업을 하고 계셨다. 나중에 교무부장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생님들에게 제공되었던 노트북을 급하게 모아 교실마다 배치하고, 전산실과 협조해 네트워크 환경을 다시 정비하였다고 하셨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급격한 교육 현장의 변화가 실감 났다. 2주가 지나고 나도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태블릿은 내게도 무척 편리한 도구였다.

수업을 처음 준비할 때는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내가 마주했던 1학년 아이들은 이제 막 중학교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어색하고 긴장되어 보이면서 귀여웠다. 그래도 교생선생님이라니 신기했는지 비대면 수업임에도 수업에 잘 집중해주고 질문에도 잘 응해주어서 고마웠다. 그러다 수업 차시 중 실험 수업이 있어서 담당 선생님과 함께 실험과정 영상을 미리 찍어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각자의 방에서 영상에 집중하고, 영상에 나오는 나와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웃는 아이들을 화면 너머 보니 나도 괜히 웃음이 나왔다. 실습 기간과 아이들의 등교일이 겹치지 않아 직접 보지 못했던 게 참 아쉬웠다.

비대면 상황 속에 4주간 실습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루빨리 전염병 상황으로부터 해방되어 걱정 없이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 학기 시작부터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1학년 아이들의 경우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 와본 적도 없고, 같은 반 아이들끼리도 서로 실제로 본 적 없이 화면으로

만 마주하며 수업을 듣고 있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못하니 담임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하는데 한 학기의 반이 훌쩍 넘은 5월이 되어서도 상담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한해가 지난 지금은 다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으로 전면등교가 취소되는 학교들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언제든 비대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할 '관계 맺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그래도 사람이 관계성을 배우는 것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상호작용하는 것만큼 좋은 훈련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부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부터 해방되어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고, 친구, 선생님들과 상호작용하며 자라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하기 시작하던 작년 5월, 모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약 10년 만에 방문하는 모교에서 실습한다니 큰 기대와 설렘이 있었지만,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들을 직접 마주할 수 없어 아쉬웠다. 그러나 변치 않

학교현장 탐방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서울애화학교



이효선  
서울애화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서울애화 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향해 함께 가는 서울애화학교의 교육혁신 부장이효선입니다. 본교는 튜칭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수녀원에서 설립한 가톨릭 재단의 특수학교이며 올해로 45주년이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청각·지적장애 특수교육기관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전공과까지 총 24학급 120여 명의 학생, 그리고 교직원과 여러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애화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울애화학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강점을 활용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연계 및 특수교육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당당한 자립인'이라는 비전을 위해 다섯 가지의 인간상을 교육목표로 삼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자의식을 갖고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둘째,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 셋째,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른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 넷째,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다섯째, 자연에 대한 관심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마을이 모두 더불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서울애화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화학교는 2019년과 2020년, 특수학교로는 최초로 마을결합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마을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을결합형 학교란 초·중·고등학교(특성학교, 특수학교 포함)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결합형 학교에는 마을결합 일반학교, 중점학교,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애화학교는 2년간 마을결합 중점학교를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학교운영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라는 혁신학교 과제에 따라 다양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을 위해 학교급별로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합니다. 가령 유치원에서는 '싱그러운 마을'이라는 생태 활동 프로젝트를 하며,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동네 신문 만들기 프로젝트', 중등에서는 '마을과 함께 자연 사랑 UP! UP!', 지적 중등에서는 '마을에서 찾아 키우는 내 꿈', 전공과에서는 '마을 내 기관을 바탕으로 한 랜선 마을 탐방'을 합니다. 이외에도 마을 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음악치료 수업을 하거나, 바리스타나 피부관리사 등의 마을교사와 진로체험 교실을 열기도 합니다.

'학교운영혁신'을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거버넌스 협의체'와 '학교-마을결합 소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또한, 수업(배움) 중심의 학교를 위해 마을과 함께 하는 '요리교실'과 '건강지킴이 교실'을 운영하며, 본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찾아가는 수업교실'도 진행합니다. 마을을 경험할 수 있는 '애화마켓'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 문화 활성화'로는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실'을 통해 성교육, 요리, 수어 등을 배우고 가르치며, '마을에서 교사 역량 키우기'를 통해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이외에도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교의 모든 교직원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강점을 지원하기 위해 다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사 외에 학부모, 마을의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과 함께 학생을 진단하고 교육하며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마을 교사



의 전문성이 융합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삶과 배움이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경험을 하게끔 합니다. 교과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본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킵니다.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확장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인근의 일반학교, 기관, 구청,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협의회'와 '학교-마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모임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학교 간 교류는 어렵더라도 혁신학교의 운영 내용을 서로 함께 공유한다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마을결합 혁신학교가 될 것입니다.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본교 학부모님에게 만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을 드렸을 때, '애화마켓', '요리교실', '꿀잼학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애화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영하는 '요리교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본교 영양 선생님과 함께 열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만든 음식을 인근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노인학교 등에 전달해드렸는데 모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배움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화마켓'은 전공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만들고 포장한 후 바코

드 작업까지 한 드립커피, 천연 탈취제, 문구류, 간식류 등을 유휴공간에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마켓 이용자는 본교의 유치원 아이들부터 전공과 학생들까지 아주 다양하며 개인의 마켓 이용 쿠폰을 사용하여 원하는 물건을 직접 고르고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까지 완료하는 간접 '지역경제활동 체험'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위해 학급에서는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이 공동의 규칙을 정하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각자 스티커를 모은 수만큼 마켓이용금을 적립해주고, 아이들은 적립된 금액으로 애화마켓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애화마켓에 꼭 한 번 구경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꿀잼학교'는 인근의 일반학교에 통합된 청각·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본교에서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 기획을 했으나 3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단계가 격상되며 실시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특수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학교로 완전통합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다양한 장애학생들이 원격학급과 도움반(특수학급)을 오가는 상황, 때론 방치되기도 하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통합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장애학생 지도 및 완전통합의 운영사례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인 이수과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완전통합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특수학교에서의 비장애학생들과 역통합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후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본교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이 협약을 맺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혜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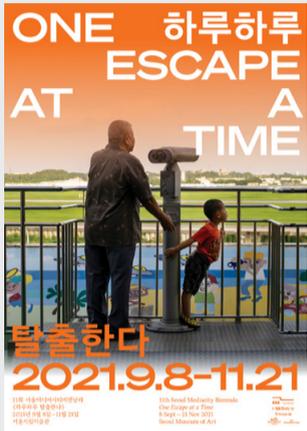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마을 교사의 전문성이 융합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삶과 배움이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경험을 하게끔 합니다. 교과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본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시킵니다.



문화 탐방

현실 밖을 향한 상상력으로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

이번 문화탐방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를 소개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41명(팀)이 참가하였으며 58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울감이 만연한 요즘, 불안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루는데요. 인종주의, 젠더, 계급, 정체성, 이주와 환경 문제 등 사회적 화두가 담긴 작품들은 우리에게 저마다의 질문을 던집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관람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볼까요?



- 전시장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전시기간: 2021.09.08.(수)~11.21.(일)
- 관람시간: 평일(화~금) 오전 10시~오후 8시, 토·일 공휴일 하절기(~10월) 오전 10시~오후 7시, 토·일 공휴일 동절기(11월~) 오전 10시~오후 6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 관람연령: 제한 없음
- 관람요금: 무료
- 전시문의: 02-2124-8800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관람안내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https://sema.seoul.go.kr)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관람 가능  
- 예약 시작시간 30분 이후 입장 불가

‘도피주의(Escapism)’는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방관하거나 공상과 관념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태도’로 도피주의를 정의한다. 하지만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One Escape at a Time)>는 긍정적 의미의 도피주의를 조망한다.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개인의 욕망은 예술과 대중문화의 상상력을 만나 작품으로 남았다. 또한, 현실 밖을 향한 상상력은 타자와 공감하는 통로가 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폭넓은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온라인으로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웹사이트(mediacityseoul.kr)로, 오프라인으로는 ‘유통망’과 ‘메아리’ 프로그램으로 그 영역을 확장한다. ‘유통망’은 대중 미디어의 유통 체계에서 영감을 받아, 미술관 밖에 비엔날레 전시 작품의 재현물을 게시하는 프로젝트이다. 카페, 음식점, 상점, 서점, 미디어캔버스 등 서울시 전역 100여 곳의 거점에 포스터, 영상 클립, 사운드트랙, 오브제 등이 유통되었다. 비엔날레가 더 많은 시민 및 도시 환경과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탐색한 것이다. 한편, 공공 프로그램인 ‘메아리’도 운영된다. 미술 공간과의 협업, 퍼포먼스, 온라인 프로젝트, 전시 투어, 아티스트 토크, 강연 워크숍 등이 미술관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도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중이다.



취미가X워크스, <OoH>, 2021, 강남구 케이팝스퀘어 미디어 ©홍철기, 글림워크퍼처스

1F, 미네르바 쿠에바스, <작은 풍경을 위한 레시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으로 들어서면 계단 아래로 대규모 벽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바로 미네르바 쿠에바스의 <작은 풍경을 위한 레시피>라는 작품이다. 풍경의 한국적 재현 방식을 디지털 기술 세계의 시각에서 상상해본 작업이다. 픽셀 비디오 게임과 같은 시각 언어를 사용해 식품 산업과 동물권에 관한 작가의 소신을 표현한다.

평화로운 산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여성과 토끼, 스펀 한 통, 곳곳에 피어난 거대한 버섯 등이 벽화 속에 묘사되어 있다. 뒷모습으로 그려진 인물은 영화감독 임순례에 대한 오마주이다. 남성 중심적인 영화 업계에서 여성 감독으로서 이론 성취와 동물권을 향한 열의에 영감을 받았다. 한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스펀 통조림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일상적인 식재료로 자리 잡으면서 명절 선물로서도 사랑받지만, 아픈 역사를 상징하기도 한다. 동시에 오늘날의 게임 문화도 되돌아보게 한다. 큼직한 픽셀로 구성된 벽화를 바라보면 슈퍼마리오와 같은 초기 비디오 게임의 시각 언어가 연상된다.



미네르바 쿠에바스, <작은 풍경을 위한 레시피>, 2021 ©홍철기, 글림워크퍼처스

1F, 홍진희,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v2.0>

1층에 있는 1전시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홍진희 작가의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v2.0>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산업의 알고리즘을 교란하는 대안적 영상 구독 서비스 ‘DESTROY THE CODES(https://destroy.codes)’를 제시한다. 대형 플랫폼의 영상 추천 알고리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시각 권력으로 여기며 비판적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시각 콘텐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로 인해 우리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고만해온 결과이다.

‘DESTROY THE CODES’를 통해 작가는 상업 플랫폼에는 노출되지 않는 세계 곳곳의 이슈와 관점을 공유함과 동시에 관람자도 직접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관 1층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시각화하고 선언문을 게시한 동시에, 3층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역학 관계를 드러낸 사진 작업을 전시하였다. 올림픽 개최국들의 도시미관사업을 제시하며 미디어 속에서 구축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편,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위해 절탈과 크레인에 오르는 농성자들과 권력으로부터 검열된 시위의 모습



홍진희,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v2.0>, 2021 ©홍철기, 글림워크퍼처스

을 내보이기도 한다.

1F, 리라오, <모르는 채로 2020>

리라오의 <모르는 채로 2020>은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된 때 만들어진 영상 작업이다. 당시 중국 후베이에 거주하던 작가는 봉쇄된 도시에서 퍼포먼스 영상을 제작한다. 그는 손바닥 위로 기다란 나무 장대의 균형을 잡으며 우한 곳곳을 누빈다. 인적을 찾아보기 힘든 텅 빈 광장, 공원, 넓은 대로와 도심이 차례로 영상 속에 나타난다.

장대 끝에 매단 비닐봉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묘기에 열중하는 모습은 황량한 도시 속 부조리함과 우스꽝스러움을 부각한다.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일상에서는 그 사실을 종종 망각하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행동에 몰두하는, 도피주의적인 우리의 모습이 연상된다.



리라오, <모르는 채로 2020>, 2020, 영상 캡처 화면 작가 제공

2F, 아이사 흑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

안무가이자 퍼포머인 아이사 흑슨은 한국 케이팝 아이돌의 음악과 안무를 차용하며 대중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는 전 세계의 호텔, 바, 카바레 등에서 공연하는 필리핀 이주노동 뮤지션들의 영향을 받아 2019년, ‘필리핀 슈퍼우먼 밴드’를 결성했다.

이후 사랑을 원하는 헌신적인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팝송 ‘슈퍼우먼(1989)’의 가사를 여러 언어로 개사해 뮤직비디오와 공연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면서 ‘나는 슈퍼우먼이 아니야’라고 노래하는 원곡의 맥락을 비틀어버린다. 이를 통해 필리핀의 뮤지션 산업과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노동자 수출 현실과 식민주의적 상황을 꼬집는다.

신작인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은 팬데믹 시대를 반영한다. 의류서비스업계 종사자가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기본적인 처우 개선은 좌절되는 현실을 다룬다.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2019)’가 매시업된 음원과 아이돌의 안무의상을 가져온 뮤직비디오 연출을 통해 케이팝을 실험적으로 확장해낸다.



아이사 흑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 2021, 영상 캡처 화면 작가 제공

3F, C-U-T

싱가포르 출신 작가 밍 윈은 자신의 매니지먼트 하에 ‘C-U-T’라는 ‘스웨덴 케이팝 보이밴드’를 결성하였다. 작가가 퍼포먼스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예술학교의 여섯 학생(닐스 앙스트롬, 발렌틴 말름글렌, 빅토르 포겔스트림, 아론 포겔스트림, 카론 닐센, 카이우 마르케스 드 올리베이라)을 한 그룹으로 모은 것이다. 올해 결성된 ‘C-U-T’는 ‘KALEIDOSCOPE (2021)’라는 곡으로 데뷔까지 마쳤다. 케이팝이 하나의 음악 장르로서 지니는 특성을 비롯해 팬덤을 구축하는 과정, 구성원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다각도로 참조하여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대중문화 산업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탈국적적 가치와 쿼어 친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케이팝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다. 작가들은 공동 작사·작곡, 음악 프로듀싱, 퍼포먼스, 홍보, 머천다이즈 등 케이팝을 구성하는 활동을 관찰 및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신곡과 뮤직비디오, 인터뷰 영상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색색의 유리 조각이 부딪히며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만화경(Kaleidoscope)처럼 갈등과 충돌을 넘어 서로를 포용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다.



C-U-T 프로필 사진. 작가 제공 ©테레스 외르발

이번 비엔날레를 총괄한 예술 감독 윤 마는 “비엔날레를 찾는 한국 관객들이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과 만나고, 연대와 ‘함께 있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장기화 및 경제위기로 인해 우울한 분위기 속, 사회적 갈등 또한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인종주의, 젠더, 계급, 정체성, 이주, 경제 위기, 환경 문제 등의 쟁점을 다시 한 번 상고해본다. 예술을 통한 다양성의 이해와 수용, 그리고 연대가 어찌하면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박기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 사진 서울시립미술관 제공